

* 이 용 희

목차	Abstract
	I. 서론
	II. 춘앵전의 효사상 및 예약사상의 기원
	III. 춘앵전을 활용한 초등 무용수업의 구성
	IV. 결론
	참고문헌

* 춘천교육대학교 체육교육과 강사

논문투고일 : 2023.07.27

논문심사일 : 2023.08.10

게재확정일 : 2023.09.12

Exploring the class of elementary dance education using Chun-Angeon

Lee, Yong-hee · Chuncheo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his study examined the ideological implications inherent in Chunangeon and attempted a new educational perspective that could form the basis for social ethical norms and moral practice through the personality educational approach of elementary dance education. In other words, Chunaengeon aims to be an ethical personality education through Yeak ideology based on filial piety education through filial piety cultural political ideas and poetic personality education through poetic dance terms. Therefore, it is hoped that it can be an alternative to practicing not only practical education but also true education of arts for the development of a holistic personality in elementary dance education using Chunangeon.

This paper presented a model of elementary dance education that comprehensively integrates all the elements such as the history, ideas, dance terminology and characteristics of Chunangeon, educational significance, song name, rhythm, and Changsa to examine the personality educational implications of elementary dance education using Chunaengeon.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the elementary dance curriculum using Chunaengeon could be expressed delicately and correctly through the terms of Chunaengeon's dance, the characteristics of the dance, and the educational meaning, focusing on the personality education of teaching behavior. Second, through accompaniment music and creation, emotional stability and poetic dance were understood as Jeongjae music dealt with in the field of music appreciation during the 5th grade music curriculum in elementary school. Third, it was able to understand the symbolic meaning of spring, restoration, joy, and peace, as well as the relationship between dance and costume, which is reminiscent of the image of a nightingale singing on a spring day.

To this end, "Chunengeon" is considered to be a work that provides the basis for progressing as a person by adding filial piety and poetry, arts, and evil ideas that Confucius valued.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learners had a positive effect on overall personality knowledge by learning and learning the concepts and ideas contained in the dance by performing understated composition and movement through example and evil. In order to set the core values and directions of personality education as an alternative to escape the physical and emotional turmoil and

change of elementary dance education today, it is hoped that follow-up research will be conducted to prove the educational value of court dance by deriving a more diverse perspective and educational elements.

〈key words〉 Chunangeon, Yeak ideology, Personality Education, Elementary Dance, Biri, Top Top Top Go, TawonAngjang, Hwajeontae, Nakhwa Yusu, Yeowipung, Bigeumsa
〈주요어〉 춘앵전, 예악사상, 인성교육, 초등무용, 비리, 탑탑고, 타원양장, 화전태, 낙하유수, 여의풍, 비금사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서는 ‘핵심역량’이라는 과제를 중점에 두고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 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제7차 교육과정은 학문 간의 통합중심·융합중심교육으로 예술의 인성 및 창의력 강화를 위한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와 타문화의 가치수용에 중점을 두고 있다”(이미연, 2015:1). 이를 통한 각 교과별 역량의 논의는 교과과정안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체육교과의 역량은 신체활동을 바탕으로 신체적·정신적, 사회적·환경적 건강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자신의 신체적 수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새로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신체 수련 능력으로 구성되어 있다”(이강순, 2017:150).

이렇듯 표현 영역으로써 “움직임 표현은 신체를 인식하게 하고, 리듬 표현은 민감성을 향상하게 하며, 민속 표현과 주제 표현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다름을 이해하는 개방성과 독창성으로 구성”되어 있다(이강순, 2017:150). 특히, 초등무용교육의 3~4학년과 5~6학년은 움직임 표현, 리듬 표현, 민속 표현, 주제 표현으로 각 영역별로 구성되어 있다. 이처럼 신체표현은 움직임 욕구와 심미적 표현 의지를 무용교육을 통해 충족하여 의사소통의 질을 높이고 원활한 인간관계를 형성함으로써 기본적 정서와 심미적 안목을 기를 수 있다.

현 교육은 “제7차 교육과정의 통합·융합교육으로 음악과 춤, 음악과 악기를 함께 하는”(이미연, 2015:99). 신체표현 활동으로 예술교과 간의 인성과 창의력 강화, 전통과 함께 타문화의 융합적 가치수용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춘앵전은 초등학교 5학년 음악교육과정 중 음악감상 영역에서 다루고 있는 정재악곡으로 예약사상에 입각하여 형성된 춤으로 독무로서의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인성’에 관한 문제는 “여러 가지 병의 발생·경과에 따른 사회병리현상”(김석기, 2016:86).의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아울러 무용교육은 인지적·정의적·심동적 영역의 완전한 조화를 지향하는 교육으로서 전인적 인성 함양에 그 가치가 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정재에 대한 교수자들의 기초 지식뿐만 아니라, 정재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조차 부족하여 수업내용이 부실한 채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김수현, 2009:2). 이와 같이 과거의 우리 교육은 가시적인 성과 위주와 지식 위주의 몰입교육으로서 그 한계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춘앵전이 초등학생에게 생소한 작품일 수 있지만, 시적인 그 의미와 춤사위를 연상시킴으로써 언어의 풍

부함, 창의력 향상개발과 인성교육 및 심미적 표현능력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상술한 논의를 통해 무용교육과 관련한 춘앵전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이강순(2017)은 초등학교 표현 영역의 궁중무용 ‘춘앵전’ 연구를 위하여 한국무용의 다양성과 개방성을 알아보고, 우리 문화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제시하였다. 이미연(2015)은 ‘춘앵전’을 활용하여 교육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확산적 사고를 통한 창의력 향상’ 및 ‘우리의 전통과 다양한 문화를 수용’ 하는 것을 목표로 초등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자료를 제공하였다.

설자영(2019)은 공자의 주요사상을 바탕으로 궁중무용 ‘춘앵전’에 내재된 사상적 함의를 탐색하고 인성교육의 가치를 도출함으로써 무용교육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다. 김경숙(2013)은 궁중무용의 백미인 ‘춘앵전’을 대상으로 기능적 측면의 춤을 비롯해 춤의 역사, 사상, 음악, 문학적 요소 등 종합적으로 교수 방안을 궁중무용 교육방법의 기본 틀로 삼고자 하였다. 김수현(2009)은 정재의 특성을 살린 통합적 감상수업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초등학교 4학년 예술 교과서의 ‘춘앵전’을 분석하고 지도방법을 연구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춘앵전에 대한 연구는 질적, 양적 측면에서 발전했지만, 초등무용교육의 효과적인 교육방법으로는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한 이유는 춘앵전은 탐색의 범위와 방법이 방대하고, 이론과 실기의 총체적 안목을 갖추기가 어려워 구체적이며 효과적인 무용교육을 위한 초등무용교육 연구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춘앵전’에 초점을 맞추어 예약사상에 내재된 주요사상을 통해 초등무용교육의 인성교육적 함의의 새로운 접근을 다음과 같이 시도해 보고자 한다. 첫째, 예약사상의 기원과 춘앵전의 연계를 예禮와 시詩 그리고 악樂의 학습단계로 진행함과 동시에 무용과 음악, 미술 교과간의 통합 교육을 통해 모색해 보고자 한다. 둘째,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움직임과 그 속에 담겨있는 “역사, 철학, 윤리의 덕목들은 인성함양을 위해 적합한 교육방법 및 내용으로 제시하고자 한다”(홍애령, 2017:270). 셋째, 춘앵전은 교과간의 통합으로 학습자들에게 신체표현활동에 예약사상의 인성을 내면화시킴으로써 감각적 즐거움과 도덕적인 자아를 성장시킴으로써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초등학교의 신체표현 영역을 위한 ‘춘앵전’ 연구를 토대로 전통춤을 활용한 통합적 수업 방안을 연구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

II 춘앵전의 효사상 및 예악사상의 기원

1. 춘앵전의 효사상

“공자의 유교사상에서 효孝는 인仁을 행하는 근본적인 개념으로, 인간 자신의 내재적 덕성에 근거한 윤리의 기본이 되는 실천 덕목으로 효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다”(설자영, 2019:42). 이처럼 유교사상을 바탕으로 조선왕조는 성리학적 이상사회를 실천함으로써 군왕들은 효를 교화의 근원으로 삼고 효를 통한 정치를 중요한 통치방식의 하나로 여겼다. 특히, 조선시대 궁중은 이러한 유교사상의 이념과 원리를 정치이념으로 삼았기 때문에 궁중무용은 국가의 통치이념이나 의식의 절차와 관련된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 이에 궁중무용은 개인적인 감정을 표출하기보다는 궁중의 각종 행사나 의식, 궁중의 연례 등에서 추어지던 춤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춘앵전’은 효명세자가 순원숙황후의 40세를 축하하기 위해 창제한 춤으로, 모친에 대한 효심에서 비롯된 작품이다. 효명세자의 시호詩號는 효명孝明으로 효심이 지극히 하여, ‘부왕 순조의 뜻을 이어 왕업을 이루고 ‘사방에 군왕의 뜻을 밝게 비춘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처럼 “효명세자는 1828-29년, 세도정권 하에 위상이 약화된 왕실의 권위를 높이고 왕권강화를 위한 노력의 하나로, ‘효의 실천’을 전면에 걸고 대청代聽기간 동안 3차례에 걸쳐 대규모 연향을 행하였다”(김명숙, 2011:120). 아울러 춘앵전은 효명세자가 연향에서 직접 악장·치사·전문 그리고 정재를 창작하여 효명세자의 효심이 주된 바탕을 이루고 있으므로 당대의 사상과 창작자의 정신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효와 관련해서인지 춘앵전의 춤사위는 몸가짐이 바르며, 움직임이 적은 춤동작에서 무게감이 느껴지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동動的인 움직임과 달리 뛰는 움직임이 거의 없으며, 개인적인 감정 표현을 억제하듯 절제미를 추구한다. 또한, “어느 한쪽으로의 치우침이 없이 의례 절차 속에서 악樂·가歌·무舞의 조화를 추구한다”(김경숙, 2011:107). 이에 춘앵전은 예악을 숭상하는 유교 시대와 관련이 깊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춘앵전은 예악사상을 근간으로 한 효 교육, 시적 춤사위 용어를 통한 절제된 춤사위에 깃든 인성교육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춘앵전은 유교사상의 주를 이루었던 시기로 예악사상에서 효사상이 더해져 인성교육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 교육적 기초를 제공하는 작품이라 사료된다.

2. 예악사상의 전개

“예악사상은 기원전 11세기 중국 주周나라에서 발원한 예악 제도로서, 종교성과 계급성을 지닌 전통적 예악 제도가 500년이 지난 춘추시대에 이르러 인간의 도덕적 수양에 필수적인 미덕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한홍섭, 2007:294). 이에 “예악사상은 공자 이후 송대宋代의 주자朱子로 이어지면서 예악 전통을 형성하게 되었으며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사상적·문화적·역사적 배경으로 아래와 같이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조소영, 2012:42).

첫째, 사상적 측면으로 보면, “중국 철학은 윤리를 중시하는 사상으로 천도天道에 관하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인륜관계로 성찰하며, 이러한 현실적 이성과 이론이 실천의 결합을 요구하게 됨으로써 여기에서 지행합일知行合一이라는 중요한 개념이 성립하게 된다”(조소영, 2012:42).

둘째, 문화적 배경으로 보면, 도道에 뜻을 두고 덕德에 근거하며 인仁에 의해 예에서 노닌다는 공자의 말처럼 성숙된 경지에서 맺어지는 결실인 학문과 인격이 악樂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표현에 관한 것이다. 중국 고대의 예의 제도는 길례吉禮·흉례凶禮·빈례賓禮·군례軍禮·가례嘉禮의 다섯 가지 유형별로 나눠 볼 수 있으며, 이를 오례五禮라 한다. 이중 길례를 가장 중시한 것은 원래 농경사회의 제천행사에서 비롯된 종교적 의례에 연원이 있음을 두고 고대 중국에서의 예가 종교적 성격임을 알 수 있다.

셋째, 역사적 단계로 살펴보면, 공자 이전과 이후 그리고 주자 이후의 시대로 구분해 볼 수 있으며, 상고시대부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공자에 의하면 예禮의 가장 원시적인 행위는 먹고 마시는 그들의 생활방식과 귀신에게 공경하는 뜻을 드린다는 것이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상고시대의 먹고 마시는 일상생활을 기원하는 예의 모습과 웅덩이를 파서 술통을 만들어서 술을 마시며 고기를 먹고 북을 두드리는 행위들이 모두 귀신에게 공경함의 의미를 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예악의 기원인 것이다. 이러한 원시시대의 예악은 주대에 이르러 차츰 인문학적 성격으로 가미되었는데 예는 국가 통치의 규범이 되고 악은 예의 표현과 실현을 위한 도구로 점차 인식되었다. 그러나 주周나라 초 이후 주공은 제례작악制禮作樂을 시도함으로써 은殷나라의 종교적 분위기를 지양하여 예악제정을 통한 현연공동체의식으로 바뀐 인륜관계에 따른 질서를 예제화 하였다.

이처럼 제례작악을 통한 기본정신이 윤리에 초점을 맞추면서 은殷·주周시대의 예악문화는 위계질서와 종법제가 붕괴하는 상태로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무분별한 예악 제도 사용으로 사회를 혼란하게 했지만, 예의 형식은 남아 있었다. 이에 “악樂과 예禮에 대한 세 가지 해석을 살펴보면 첫째, 악은 선천적인 본성, 예는 후천적 수양

에 기초한다. 둘째, 악은 내적으로 발현되고, 예는 외적으로 형상화된다. 셋째, 악은 내적인 정신에서 시작하고, 예는 외적인 신체에서 시작한다”(한홍섭, 2007:130-131).

이러한 맥락을 통해 “악樂은 마음에서 나오므로 온화하고 고요하며, 예禮는 바깥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통해 표현됨으로 일정한 형식의 규정이 있다. 이상적인 악은 반드시 평이하며, 이상적인 예는 반드시 소박하다. 이러한 악樂이 보급되면 사람들은 원망하는 말을 하지 않고, 이러한 예禮가 보급되면 고집부리며 양보하지 않는 일이 없어진다. 그래서 예의를 지켜 사양하는 행위로써 천하를 다스리는 일을 예악禮樂이라고 한다”(한홍섭, 2007:44). 이와 같이 악樂은 하늘과 땅의 조화로움이고, 예禮는 하늘과 땅의 질서이기 때문에 하늘과 땅이 밝은 뒤에야 예악을 흥성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예악사상이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은 조선조부터였고, 봉건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근간으로써 유교적 이념이 높이 추앙되었다”(조소영, 2013:46). 이에 따라 예악은 교화敎化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조선은 예악 사상을 국가의 안정을 도모하는 최선의 수단으로 삼았다. 이렇듯 유교문화를 근간으로 한 조선시대의 교육목표는 인간다운 인간으로 성장하기 위한 기본 소양을 갖추게 하고 이것을 일상생활 속에서 몸소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강조했던 것이다. 『논어』, 「안연편」에 공자가 말하는 ‘예禮와 인간의 수신修身’에 요점이 되는 내용을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예禮가 아니거든 눈으로 보지 말고, 예가 아니거든 귀로 듣지 말고, 예가 아니거든 입으로 말하지도 말고, 예가 아니거든 행동하지도 말라. 이 네 가지 것은 몸을 닦는(修身)데 가장 요긴한 것(修身之要)들이다. 예와 예에 어긋나는 것을 처음으로 공부하는 이는 분별하기가 어려우므로 반드시 사물의 이치를 깊이 궁구하여 이를 밝혀서 다만, 이미 아는데 까지만이라도 힘써 행한다면 생각한 바가 이미 반수를 넘었다고 할 것이다. 『論語』, 「顏淵篇」¹⁾

『논어』, 「안연편」에 공자께서 “예禮가 아니면 보지(視) 말며, 듣지(聽) 말며, 말(言) 하지 말며, 움직(動)이지 말라고 하셨다. 이처럼 인간은 예禮에 입각한 행동을 해야 하며 자신을 이기고 예로 돌아와(克己復禮爲仁) 인仁을 실현하라는 것”을 강조하였다(김용주, 2013:54). 또한 공자는 예악禮樂과 인仁의 관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람이 인하지 않고서 예는 어떻게 하며, 사람이 인하지 않고서 음악은 어찌 하겠는가?(論語「八佾」).²⁾

1) 『論語』, 「顏淵篇」, “非禮勿視, 非禮勿聽, 非禮勿言, 非禮勿動四者, 修身之要也, 非與非禮, 初學, 難辨, 必須窮理而明之, 但於已知處, 力行之, 則思過半矣.”

2) 『論語』, 「八佾篇」, 子曰, “人而不仁, 如禮何? 人而不仁, 如樂何?”

위의 인용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공자는 사람이 인仁하지 않고 예약을 행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소양에서 벗어난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 이와 같이 상술한 공자의 가르침과 일맥상통하는 춘앵전은 유교사상에 입각하여 이루어진 인성(禮儀)과 효사상 및 예약사상이 이루어진 형식의 엄격함이 평가되고 있는 작품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춘앵전’은 효명세자의 자연을 소재로 한 문학적 재능과 궁중의 질서와 예도禮度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절제된 춤사위를 악으로 풀어냄으로써 작품으로 승화시킨 것이라 볼 수 있다”(설자영, 2019:47). 그러므로 ‘춘앵전’을 활용한 초등 무용교육이 단순한 춤사위의 가르침만이 아니라 시어 표현법과 해석에 담긴 감성적 요소로부터 예약사상의 인仁을 내면화하는 신체표현활동이 되어 인성함양의 교육적 측면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III 춘앵전을 활용한 초등 무용수업의 구성

1. 춘앵전을 활용한 무용수업 기본 방향 및 교육목표

“교육은 지식교육과 인성교육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지식교육은 성장한 후에 할 수 있지만, 인성교육은 인간이 갖추어야 할 기본 교양이자 인격 형성의 기초라 볼 수 있으므로 초등학생의 올바른 성품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이용희, 양문가, 2023:36). 과거의 무용교육은 가시적인 성과로 인한 결과 중심의 평가 및 실기 위주의 몰입교육으로 그 한계점이 있었다. 그래서 인성교육적 함의의 대안을 춘앵전을 활용한 초등 무용교육에서 찾아 고찰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가소성可塑性이 풍부한 초등학생들의 심성心性은 이 시기부터 점차적으로 생성되고 확충되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본다. “초등학생들은 저·중·고학년에 따라 신장, 체중, 흉위 등의 증가와 얼굴의 변화, 내장기관의 활동 등의 증대로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신체표현 활동에 따라 신체적, 생리적, 운동능력이 발달한다”(이강순, 2017:156). 하지만, 펜데믹시대 초등학생들의 가정교육 환경 및 사회 환경으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는 학교에서의 스트레스와 같은 환경적 요소로 인한 학업부진, 친구와의 관계 악화, 학교생활에서의 부적응, 부모 및 교사와의 관계 악화 등이 있다. 인성교육적 측면에서 춘앵전을 활용한 초등무용교육의 체계화와 전문화, 응용화 과정이므로 교육과정안이 무용수업의 기본방향으로 적용될 수 있다면 긍정적 영

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초등학생들이 인성함양 및 전인적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춘앵전을 활용한 무용수업의 교육과정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예악사상과 춘앵전을 활용한 초등무용교육의 인성교육적 함의를 교과간의 통합 교육 무용, 음악, 미술로 나누어 교육목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무용교과의 춘앵전을 활용한 초등무용교육 과정안은 몸가짐에 대한 가르침의 인성교육(禮)을 중심으로 춘앵전의 춤사위 용어, 춤사위의 특징 및 교육적 의미(樂)를 통해 섬세하고 바르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음악교과의 초등학교 5학년 음악교육과정 중 음악감상 영역에서 다루고 있는 정재악곡으로 반주음악, 창사(詩)를 통해 정서적 안정감 및 시적인 춤사위를 이해함으로써 춘앵전의 예와 악을 통한 의의를 알 수 있도록 한다. 셋째, 미술교과와 연계하여 봄날의 꾀꼬리 이미지, 수북, 즐거움, 태평성대 등의 상징적 의미 및 춘앵전 복식의 관계를 이해함으로써 복식의 아름다움과 멋스런 색감의 조화를 그림으로 그려볼 수 있도록 한다.

2. 춘앵전을 활용한 수업 방법과 내용

이 장에서는 초등무용교육의 학습자들이 춘앵전을 배워봄으로써 토론 및 조별 협업수업이 가능해질 수 있는 신체표현을 중심으로 자율적인 학습체계의 몰입을 제공함으로써 인성교육 및 사회적 성장을 돕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이에 춘앵전은 학생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작품으로 활용도의 가치가 높으며 예와 악을 통한 놀이 및 재미의 요소를 가미하여 초등 학습자들의 참여 욕구를 자극하여 교육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교수·학습방법으로는 전습법과 분산법을 통해 학습동기와 흥미유발 및 적극적인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수업방법과 내용을 적절히 활용하도록 한다”(이용희, 황명자, 2021:8). 이에춘앵전을 활용한 초등무용교육과정안의 수업 방법과 내용들을 살펴보기 위해 춤사위 용어 및 특징, 반주음악과 창사의 교육적 의미를 제시하면 <표 1, 2>와 같다.

표 1. 초등무용교육을 위한 '춘앵전'의 춤사위 특징 및 교육적 의미

춤사위 용어	춤사위 특징	교육적 의미
 <p>① 비리飛履</p>	<p>오른발, 왼발의 순으로 한발씩 장단에 맞추어 앞으로 내미는 춤사위이며, 앞으로 뿌리는 손을 위로, 뒤로 뿌리는 손은 아래로 뿌리고 사선이 되도록 한다.</p>	<p>비리는 현실을 초월하고자 하는 의지로 비상하는 새를 모방하여 춤사위에는 자유, 꿈, 부활, 신과의 교감을 갈망하는 소망이 담겨있다. 이에 학습자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이상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한다.</p>

 <p>② 탐탐고塔塔高</p>	<p>‘한층한층 올라간다’는 말로, 탐에 오르듯이 걸음 앞으로 나가면서 한발씩 나갈 때마다 팔도 함께 차츰차츰 들어 올리는 춤사위이다.</p>	<p>천천히 팔을 들어 조심스럽게 앞으로 움직이는 변화과정으로 진행된다. 한 곳에서 빠져나오는 모습을 중시하고 계단을 차근차근 밟아 올라가는 예禮의 입체감을 주면서 학습자에게 경건하고 선의의 마음을 갖게 한다.</p>
 <p>③ 타원장장打鴛鴦場</p>	<p>원앙새가 뛰노는 것처럼 춤을 춘다는 뜻이며, 앞으로 세 걸음 나간 다음 합장단에 따라 두 팔을 뒤로 뿌리는 춤사위이다.</p>	<p>한삼을 하늘로 힘차게 뿌려 새의 힘찬 날개를 표현한 것으로 내면의 화목과 행복을 의미한다. 예약사상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학습자가 춤을 춤으로써 자연의 순화, 안정감, 몰입 등의 긍정적인 정서 상태를 하나씩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p>
 <p>④ 화전태花煎態</p>	<p>‘꽃 앞에서 자태를 짓는다’는 말로, 두 손을 뿌려 뒤에 내려 여미고 두 무릎을 굽히며 오른발을 들었다가 놓고, 왼발을 들었다 놓는 동작이다.</p>	<p>향기로운 꽃들 앞에서 향기를 음미하는 모습을 통해 밝고 단아한 미소를 볼 수 있으며, 사람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이치를 담고 있다. 학습자가 억지스럽지 않고 자연의 섭리에 어긋나지 않도록 춤사위의 자연스러움을 느끼게 해준다.</p>
 <p>⑤ 낙화유수落花流水</p>	<p>물에 떨어져 흐르는 꽃잎처럼 좌우로 한팔씩 뿌려서 뒤로 여미며 돌아가는 동작이다.</p>	<p>낙화유수는 자연의 법칙을 있는 그대로 상징화시켜 춤을 추었음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시적인 춤사위이다. 손을 뿌려 머리위로 내리는 동작은 양의 발산된 기운으로 학습자가 끊임없는 마음의 수양을 통한 인간의 깨달음과 이치를 표현하고, 중용의 도로 조화를 이루는 예약사상의 형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p>
 <p>⑥ 여의풍如意風</p>	<p>대섬수와 같은 손동작을 하며 앞으로 전진하고 뒤로 후퇴하는 춤사위이다.</p>	<p>여의풍은 바람에 흔들리듯 가벼운 걸음걸이로 날개를 펼치며 머리에 엮고 좌우와 세로로 음양의 조화를 표현하고 있다. 학습자가 하늘의 덕과 도를 깨닫고 하나가 되게 함으로써 인간 내면의 정온과 생활에 대해 믿음을 나타낼 수 있다.</p>
 <p>⑦ 비금사飛金沙</p>	<p>‘금빛 모래가 날리듯 한다’는 말로, 뒷짐을 진 채 뒤로 세 장단 물러났다가 앞으로 세 장단 나아가는 동작을 되풀이하는 춤사위이다.</p>	<p>춤사위는 뒤로 물러나 전진하는 동작을 통해 바람에 흩날리는 금빛 모래의 신비감을 보여주며, 정중동의 조화로써 인간 생활의 조화를 의미한다. 이러한 단순하고 절제된 우아한 곡선을 배우는 것은 학습자의 작품에 대한 몰입감과 평화로운 고요함을 느끼게 할 수 있다.</p>

그림 1. 한국문화재재단, “[공연영상] 2022 八侖 팔일 4회차(5.10.)”
그림출처, 2022년 한국문화의집 기획공연 팔일(八侖), 2022.05.19. <https://youtu.be/AZicS-qjKM>

〈표 1〉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무용교과와 연계한 춘앵전의 춤사위는 예禮를 중심으로 몸가짐이 바르고, 적은 동작수에도 무게감이 느껴지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움직임의 선線을 중시하듯, 그 호흡의 흐름이 멈춘 듯 움직이고, 움직이는 듯 멈춰있는 듯한 정중동靜中動의 원리를 엿볼 수 있다. 또한 개인의 감정 표현을 억제하듯 동적인 움직임과 도약이 없어 절제미를 추구한다. 또한, 화문석이라는 한정된 공간 가운데 중심을 축으로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통한 전후·좌우 대칭적 미의 공간 구성원리를 이해할 수 있으며, 일정한 규칙을 따르는 춤사위에서 단아함이 느껴진다. 이처럼 춘앵전은 절제된 형식과 내용의 움직임을 수행함으로써, 예의와 도덕적 행위 실천의 기초를 이룰 수 있는 인성교육으로서의 측면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춘앵전은 정재의 규식規式에 의해 궁중의 질서와 법도를 따르는 격식과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예를 갖추는 춤사위를 통해 예악의 정신이 깃들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초등무용교육에서 예악사상禮樂思想이 담긴 춘앵전을 활용함으로써 학생들의 바른 자세, 호흡, 마음가짐(정신)에 집중하는 인성교육의 핵심을 가르침으로써 학습자의 마음이 차분히 다스려지며 감정이 순화되는 경험을 느낄 수 있다. 그러므로 초등무용교육에서는 춘앵전을 통해 학생들의 바른 자세 및 호흡, 마음자세의 인성교육적 가치로써 학습자의 안정된 심리·정서뿐만 아니라 생리적인 변화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을 알 수 있다.

표 2. 초등무용교육을 위한 '춘앵전'의 곡명 및 반주음악, 창사

<p>춘앵전의 곡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적 곡명 : 유초신지곡柳初新之曲- 버들잎이 처음 새로이 싹튼다-봄 ▶ 곡명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봄 : 유초신지곡, 희신춘지곡, 옥전춘지곡, 경춘광지곡 ·수북 : 만년장환지곡, 장춘불로지곡, 요지반도지곡, 낙만춘지곡 ·즐거움 : 만년장환지곡萬年長歡之曲, 만세장락지곡 ·국가창성 : 천록영창지곡天籟永昌之曲 ·태평성대 : 태평만년지곡太平萬年之曲 ·아름다운 연희 : 가연지곡嘉讌之曲 ·상서로움 : 봉상지곡鳳祥之曲 ▶ 세령산·(빠른) 도드리·타령을 장구로 익히도록 연주한다. 그 밖에 의미로 봄은 '춘앵전', '희신춘지곡', '옥전춘지곡', 즐거움은 '만년장환지곡', '만세장락지곡', 수북은 '천년만세지곡', '장춘불로지곡', '요지반도지곡', 아름다운 연희는 '가연지곡', '경진가회지곡', 국가창성은 '천록영창지곡', 태평성대는 '태평만년지곡' 등의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p>춘앵전의 반주음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조영산회상은 춤사위에 맞게 적절히 배분하여 연주한다. ▶ 상령산은 10박이다. 하지만 6박부터 장단을 시작하여 10박까지 연주하고, 이어서 3장단을 반주하고 약지하면 창사를 부른다. 이어 종령산 8장단, 세령산은 6장단, 도드리 18장단, 빠른도드리 9장단, 타령 24장단으로 연주한다. ▶음악의 도입부는 박 1회로 시작되고 음악의 종결부는 박 3회로 마무리한다. 다른 장단으로 넘어갈 때에는 박을 침으로써 장단의 변화를 알려준다.

창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궁중춤은 춤의 내용을 춤추는 무원이 노래로 부르는데, 이를 ‘창사(唱詞)’라 한다. ▶ 도입부에서는 춤의 내용 및 의미를 노래와 춤으로 이어진다. ▶ ‘춘앵전’의 창사는 오언절구의 한시로 되어있다. <p style="text-align: center;"> 빙정월하보(冰) 媵(媵) 月(月) 下(下) 步(步) 아름다운 달빛 아래 걸음이어 나수무풍경(羅) 袖(袖) 舞(舞) 風(風) 輕(輕) 비단 옷소매 바람에 일렁이네 최애화전태(最) 愛(愛) 花(花) 前(前) 態(態) 꽃앞의 자태 참으로 사랑스러우니 군왕임다정(君) 王(王) 任(任) 多(多) 精(精) 군왕께서는 다정을 맡기고 계시네 </p>
----	--

〈표 2〉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음악교과와 연계한 “춘앵전의 음악적 특징은 곡명과 장단에서 살펴볼 수 있다. ‘춘앵전’ 곡명은 정재무도홀기에 ‘유초신지곡’이 대표적으로 통용되는데, 그 밖에 여러 가지 아명에서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장단은 상량산으로 시작하여 창사를 하고 5번의 변화를 거쳐 타령으로 끝을 맺는다”(김정숙, 2013:45). 음악은 생명의 리듬이자 사람의 감정을 반영한 예술이듯 자연스럽게 발산하고 정서를 편안하게 해줌으로 사람들에게 감동과 위안을 준다. 이처럼 “음악이 사람을 감동시키는 이유는 마음의 감정으로부터 독특한 느낌을 일깨워줄 수 있는 보편적인 언어이자 특수한 형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易中天, 곽수경, 2017: 407).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음악과 감성(마음)교육을 통한 초등무용교육의 연계는 전인교육으로서 인성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본다. 또한 악樂이 사람들에게 주는 미적 감동은 음음만이 아니라 사물의 이치를 파악하고 이를 표현해내야 하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음악을 통해서 스스로의 성정性情을 도야하고 나아가 세상을 교화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악樂은 예禮와 가깝다고 볼 수 있으며, 음양이나 남녀의 관계처럼 서로의 존재가 있음으로 인해 의미와 가치를 지니므로 상보적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초등무용교육에서 춘앵전은 반주되는 음악과 음률, 음색 그리고 리듬을 통해 학생들이 저절로 예를 갖추며 심리적인 마음의 안정감과 정신의 집중을 가져오며 고요한 상태를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춘앵전의 반주음악은 동일한 리듬과 느린 미학의 정서를 내포하고 있어 자신에 대한 몸과 마음의 몰입도가 높아 학생들의 마음을 정화시키고 다스리는데 효과적인 춤이라 볼 수 있다.

또한 미술교과와 연계한 춘앵전의 기본 복색을 살펴보면 녹색 또는 황색이다. 이는 버드나무와 꾀꼬리의 상징으로 보이는데, 버드나무 사이로 숨박꼭질을 하듯 드나드는 꾀꼬리의 모양을 형상화하고 있다. 이처럼 춘앵전의 복식은 꾀꼬리의 아름다운 자태 및 색감을 토대로 춘앵전에 어우러지도록 형상화되었다.



그림 2. 춘앵전 복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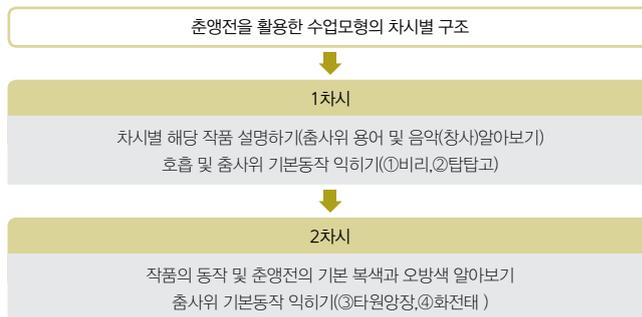
출처: 한국문화재단, "[공연영상] 2022년 한국문화의집 기획공연 팔일(八佾), 2022.05.19. <https://youtu.be/AZicIS-qikM>

특히, 황초삼에 초록하피가 바로 피꼬리와 버드나무를 상징 하고 있다. 여기에 등장하는 오채五彩 한삼은 자주(북방), 흰색,(서방) 빨강, 노랑(중안), 남색(동쪽) 순으로 되어 있으며, 오방색은 노랑이 중심이지만 오채한삼은 빨강이 중심이다. 춘앵전은 독무로 추어지는데 무동이 추기도 하며, 대개 여기의 춤으로 복식의 아름다움과 멋스런 색감의 조화를 이루어 화려한 의태를 보이는 춤이라 할 수 있다.

상술한 논의를 통해 초등무용교육에서 학습자들에게 춘앵전의 복색을 설명함으로써 미술교과와 연계한 춤과 의상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학생들에게 PPT 자료를 통해 춘앵전의 복식을 그려보게 하고 각자의 색감과 형태를 그려봄으로써 피꼬리의 이미지, 색깔 등이 어떻게 춘앵전에 어울리는 복색으로 만들어졌는지를 설명한다. 또한, 춘앵전 의상과 죽두리를 보면 우리나라의 어떤 작품과 연상되는지? 화문석에 새겨진 그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화문석의 공간 구성 및 몸 방향 등 전후·좌후 4방향의 대칭미와 민속춤과 비교하여 생각해 보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퀴즈를 통해 학습의 흥미와 더불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3. 수업모형에 따른 지도안

춘앵전을 활용한 수업모형에 따른 지도안은 들어가기(동기유발 및 주제탐색), 움직임 탐색 및 춤추기, 생각 나누기로 구성됨으로써 수업의 다양화와 구체화에 의의를 두고 있다. 아울러 춘앵전을 활용한 초등무용교육의 수업모형에 따른 과정은 예禮와 시詩 그리고 악樂의 학습단계로 무용, 음악, 미술 교과간의 통합교육을 통해 진행한다. 춘앵전을 활용한 수업모형을 살펴보기 위해 1주일에 1~2회 수업을 진행하는 무용활동수업에서 4차시에 걸쳐 탐색 범위와 교육방법을 제시하면 <그림 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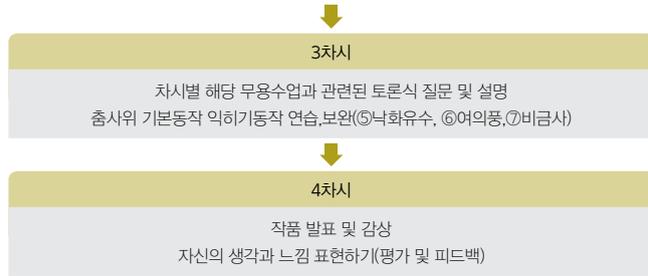


그림 3. 춘앵전을 활용한 수업모형의 차시별 구조

이를 토대로 춘앵전과 관련한 무용, 음악, 미술에 대한 시·청각 자료들을 제시함으로써 쉽게 이해하고 흥미유발이 될 수 있도록 학습자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체계화하고자 한다. 이에 춘앵전을 활용한 수업탐색은 문제해결 능력 향상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교수자의 시범이나 설명 및 학습자들의 다양한 사고를 유도하는 창의적 질문과 동작을 강조한다. 이 과정을 통해 단순히 춘앵전은 동작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예악 사상의 인성을 깨달을 수 있는 무용작품으로 교육하고자 하는 것이다. 상술한 논의를 토대로 춘앵전의 초등무용교육과정안의 학습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새로운 수업설계를 <그림 4>와 같이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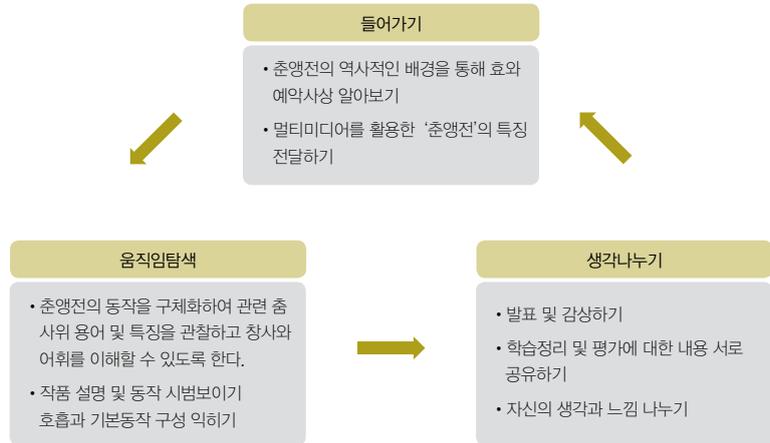


그림 4. 춘앵전을 활용한 초등무용교육과정의 수업모형

1) 들어가기

‘들어가기’는 교수·학습자와의 상호작용 방식을 채택하여 새로운 교육내용을 도입하는 것으로, 주제의 동기유발 및 주제탐색으로 학습자에게 주제 및 내용을 설명하고 작품을 배울 수 있는 과정으로 학습자의 호기심을 자극하는데 필요한 단계이다. 무용수업 중에는 멀티미디어 자료를 통해 사진, 영상을 바탕으로 학습자들에게 춘앵전의 역사적 배경 및 예악사상의 인성교육적 가치를 설명한다.



그림 3. 피꼬리 소리에 감동을 받은
당나라 고종의 상상도(김수현, 2009:13)

예컨대, 춘앵전은 피꼬리 소리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이에 학습자들에게 시각적 자료로 “당나라 고종도의 상상도”(김수현, 2009:13)를 제시한다. 또한 학습자들에게 피꼬리 울음소리의 청각적 자료로 들려줌으로써 상상력 및 감각적 즐거움을 토대로 춘앵전의 창작배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피꼬리의 이미지를 보여주며 피꼬리의 색깔과 춘앵전의 복색이 노란 앵삼

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같이 춘앵전의 창작배경은 어머니를 위한 아들의 효심으로 따뜻하고 유순한 음식과 느리고 담담한 정서를 내포하고 있어 침착한 유현미幽玄美의 특징이 있으므로 학생들에게 전인적 교육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전인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타인을 배려할 줄 알며, 신체적·심리적·정신적·사회적 균형의 발달로 개인의 모든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달시켜 창조적 개인을 형성하는 것”(김영남, 2017:10)이다. 따라서, 학습자들은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를 이해 및 배려하며, 움직임의 통해 심리적으로 고요한 마음상태를 형성시켜줌으로써 정서적 안정과 인성교육을 통한 전인적 교육의 가치를 알 수 있다. 또한 춘앵전의 춤사위 내용 및 시적 표현에 대해 교수자가 학습자들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인성교육의 정신이 깃들어 있음을 지도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습자는 춘앵전에 대한 설명을 듣고, 능동적 태도의 효과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며, 교수자는 학습자들이 자유로운 분위기에 신체표현 및 상호소통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그러므로 예약사상과 춘앵전을 활용한 초등무용교육은 학습자들에게 다양한 질문과 자주적인 수업 분위기를 통해 학습자의 신체 및 사유의 능동성을 자극할 수 있도록 한다.

2) 움직임 탐색 및 춤추기

‘움직임 탐색 및 춤추기’는 학습자에게 익숙하지 않은 춤사위 용어 및 움직임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로서, 교수자는 춘앵전의 춤사위 용어 및 동작의 특징, 창사의 내용을 해석하여, 학습자가 춤사위 어휘를 익힐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비리飛履’ 동작을 시작으로 어려운 동작보다는 쉬운 동작을 여러 번 반복하는 움직임을 통해 마음의 편안을 느끼며 자연스러운 동작으로 구성하도록 하였다. 작품의 순서는 호흡과 함께 상체, 하체사위의 움직임을 중심으로 난이도의 단계를 구성하였으며, 학습자들의 수준별 눈높이를 맞춰 움직임의 강도는 약에서 강으로 진행하였다. 아울러 조를 나누어 협업하는 교육방식을 통해 학습자들이 서로의 예의를 갖추는 무용 자세의 특성을



그림 4. 춘앵전 춤사위를 익히는 과정
출처: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838782\(2013.07.11\)](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838782(2013.07.11)).

바르게 익힐 수 있도록 한다. 예컨대, 학생들을 위한 인성교육서인 『격몽요결』의 「지신장」에서 구용九容을 살펴보면, “발의 모습은 신중하게(足容重)하고, 손의 모습은 공손하게(手容恭)하고, 눈의 모습은 단정하게(目容端)하고, 입의 모습은 다물게 하고(口容止), 목소리는 고요하게 하고(聲容靜), 머리의 모습은 곧게(頭容直)하고, 기운은 엄숙하게(氣容肅)하고, 서 있는 모습은 덕德스럽게(立容德)하고, 얼굴빛은 장엄하게(色容莊)하라 하였다”(김용주, 2013: 52).

위의 내용을 토대로 춘앵전은 예禮를 갖추어 호흡을 통해 감정이 외부로부터 강하게 표출되지 않도록 하며, 단순하면서도 절제된 곡선과 회선으로 표현하고, 고요한 마음상태를 형성시키는 작품으로 진행하도록 한다.

이렇듯 한문으로 된 춤사위 용어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지도하며, 춤사위 용어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를 동작으로 표현해 볼 수 있도록 한다. 교수자는 궁중춤 보법의 특징인 3단계를 시범을 보이며 호흡과 함께 한삼을 반복하여 뿌려 보고, 한삼사위의 기운이 끝자락까지 미치는 순간을 익힐 수 있도록 반복 지도한다. 또한 시적인 춤사위 용어의 풀이를 통해 자신의 개성을 살려 춘앵전을 자신있게 출출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학습과정을 통해 학습자들의 감정과 움직임의 섬세하면서도 자유롭게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학습자들의 불안심리를 낮추어 보다 적극적이며 안정된 분위기의 수업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한다. 상술한 논의를 통해 춘앵전을 활용한 초등무용교육과정안은 신체적, 사회적, 지적 성장과 발달로 몸으로 움직임을 익히고 춤사위 용어에 담긴 의미를 느낄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은 학습자들의 몸과 마음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

3) 생각 나누기

마지막 단계인 ‘생각 나누기’는 학습자들이 그동안 배운 동작을 발표 및 감상함과 동시에 서로의 생각과 느낌을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교수자는 춘앵전을 학습한 후 정리 및 평가하고 피드백해 줄 수 있는 평가자료를 제시해줌으로써 학습내용에 대한 결과물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에 학습자들은 무용발표 및 평가자료를 토대로 정확한 춤사위 용어 및 작품의 특징을 인지함으로써 예약사상과 춘앵전 통해 도덕적 행위 실천의 기초를 이룰 수 있는 인성교육으로서의 측면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 '춘앵전'에 대한 학습평가 자료

1. 순조의 아들 효명세자는 춘앵전을 누구를 위해 만들었나요?

- ① 신하를 위해서 ② 백성을 위해서 ③ 왕비를 위해서 ④ 어머니를 위해서

2. 다음 중 춘앵전 작품을 고르세요.



3. '춘앵전'을 출 때 반주음악으로 사용하는 곡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 ① 평조 영산회상 ② 창부타령 ③ 정선아리랑 ④ 피꼬리 타령

4. '춘앵전'에 사용되는 악기의 이름을 쓰세요.

- ①() ②() ③() ④()

5. 다음 중 '탑탑고(塔塔高)' 춤사위의 특징을 고르시오.



- ① '금빛 모래가 날리듯 한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② '물에 떨어져 흐르는 꽃잎'을 나타내는 동작이다.
 ③ '한층한층 올라간다'는 말로, 탑에 오르듯이 들어 올리는 춤사위이다.
 ④ '꽃 앞에서 자태를 짓는다'는 뜻이다.



그림 5. '춘앵전'에 대한 학습평가를 진행하는 학습자들의 모습
 출처: 꿈다락토요문화학교 - 합천 (2019.06.08.)

또한, 교수자는 학습자들에게 춘앵전을 가르쳐줌으로써 학습 전과 학습 후가 어떻게 다른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해준다. 이러한 무용교육과정을 통해 학습자들이 무용 동작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작품에 담긴 역사상의 함의를 느끼게 하고, 춤사위마다 고유한 의미가 있음을 깨닫게 해준다.

그러므로 학습자의 내면을 환기시키는 감정 상태를 동작, 언어 등으로 형상화하여 다른 사람에게 정서를 전달함으로써 자신이 춘앵전을 통해 표현하는 정서의 가치를 느끼게 되는 기회와 경험이 될 수 있다.

IV 결론

본 연구는 춘앵전을 활용한 예악사상적 함의를 고찰하며 초등무용교육의 인성교육적 접근으로 사회적 윤리 규범과 도덕적 실천행위의 기초를 이룰 수 있는 새로운 교육적 관점을 시도하였다.

또한 춘앵전을 활용한 초등무용교육의 수업탐색을 살펴보기 위해 춘앵전의 역사, 사상, 춤사위 용어 및 특징, 교육적 의의, 곡명, 장단, 창사 등의 기본적 구성들을 통합하는 수업모형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무용교과의 춘앵전을 활용한 초등무용교육 과정안은 몸가짐에 대한 가르침의 인성교육(禮)을 중심으로 춘앵전의 춤사위 용어, 특징 및 교육적 의미(樂)를 통해 설계하고 바르게 표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음악교과의 초등학교 5학년 음악교육과정 중 음악감상 영역에서 다루고 있는 정재악곡으로 반주음악, 창사(誦)를 통해 정서적 안정감 및 시적인 춤사위를 이해함으로써 '춘앵전'의 예와 악을 통한 의의를 알 수 있었다.

셋째, 미술교과와 연계하여 춘앵전의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봄날의 피꼬리 이미지, 수북, 즐거움, 태평성대 등의 상징적 의미 및 작품과 복식의 관계를 이해함으로써 복식의 아름다움과 멋스런 색감의 조화를 그림으로 그려 볼 수 있었다.

이를 위하여 '춘앵전은 공자의 인仁 사상을 토대로 효 그리고 시·예악사상이 더해져 인성교육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는 작품이라 사료된다. 또한 학습자들은 예와 악을 통한 절제된 구성과 움직임의 수행함으로써, 춤사위에 깃든 개념 및 사상들을 학습하고 배움으로써 전인적 인격 소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춘앵전을 활용한 초등무용교육은 실기교육 뿐만이 아닌 전인적 인격소양을 위한 예술의 참교육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초등학생들의 신체적·정서적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안으로 인성교육의 가치와 방향을 설정하고자 할 때 춘앵전과 관련해 보다 다각적인 시각으로의 접근과 궁중무용의 교육적 가치를 입증할 수 있는 후속연구가 진행되기를 바란다.

- 교육부(2015), **체육과 교육과정**, 서울: 교육부.
- 김진환(2008), **춤꾼 김진환의 재미나는 '춘앵전' 이야기**, 서울: 광림북하우스
- 김경숙(2013), “예술고등학교 궁중춤 교육 방안-‘춘앵전’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우리춤연구소, 우리춤과 과학기술 9(4)**, 35-66.
- 김명숙(2011), “효사상(孝思想)과 효문화(孝文化): 효명세자(孝明世子)의 “효문화정치(孝文化政治)”와 왕권강화(王權強化)”, **한국청소년효문화학회, 韓國의 靑少年文化 17(0)**, 113-133.
- 김용주(2013), “율곡의 인성교육론(3)-「격몽요결」의 몸가짐(지신)론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효문화학회, 靑少年과 孝文化 22**, 43-68.
- 김영남(2017), “하나로 수업 모형의 고등학교 태권도 교육현장 적용을 통한 전인교육 가능성 탐색”,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수현(2009), “초등학교 ‘춘앵전’의 감상 지도방법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진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석기(2016), “운동선수의 인성교육을 위한 덕 윤리 적용 가능성”, **움직임의 철학: 한국체육학회, 한국체육철학회지 24(3)**, 85-103.
- 남소은(2008), “예악(禮樂)적 개념의 공간 특성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 설자영(2019), “궁중무용 <춘앵전>의 인성 교육적 가치 탐색”, **대한무용학회, 대한무용학회지 77(5)**, 136-150.
- 신언경(2008), “정재(춘앵전)수행의 명상적 효과에 관한 심리·생리적 분석”, **대한무용학회, 대한무용학회지 55**, 151-178.
- 이경주(2014), “청소년의 사회성 및 정서발달을 위한 영산재 바라춤 교육프로그램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 이미연(2015), “초등교육에서의 민족무용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한, 중, 일 <춘앵전>을 예로 들어-”, **한국예술종합학교 세계민족무용연구소, 민족무용 19**, 97-118.
- 이강순(2017), “초등학교 표현 영역을 위한 궁중무용 ‘춘앵전’ 연구”,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연구원, 교육논총 37(1)**, 149-164.
- 이용희, 황명자 (2021), “코로나시대 온라인 리듬표현 무용수업의 현황 및 개선방안”, **한국리듬운동학회, 한국리듬운동학회지 14(1)**, 1-13.
- _____, 양문가 (2023), “초등학교 궁중무용 수업의 놀이적 요소 활용 모형 탐색 :요한 하위징아의 놀이 분류를 기반으로”,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34(2)**, 33-55.
- 안세정, 김은주 (2015), “공자의 예악사상으로 살펴본 유아음악교육의 방향 탐색-「논어」와 「예기」의 「악기」편을 중심으로 -”, **韓國教育思想硏究會, 教育思想研究 29(2)**, 101-127.
- 조소영(2013), “춘앵전에 나타난 예악사상적 함의”,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전통문화예술대학원.
- 정함문(2015), “孔子の 孝 사상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한흥섭(2007), “아악고(雅樂考)”,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民族文化研究 46(0)**, 291-325.

홍애령(2017), “문화예술교육의 창의·인성교육 관점에서 본 초등학교 무용교수학습과정 탐색”, 한국예술연구소, **한국예술연구 15**, 265-287.

易中天(2009), 광수경(역, 2017), **이중토텐의 미학강의**, 파주: 김영사

한흥섭(역, 2007), **예기·악기**, 서울: 책세상